

국 어

고, 결국 오늘의 불쌍사나운 광경이 초래되기에 이른 것이다.

문 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글을 쓰노라고 쓴 것이 엉망이 되었다.
- ② 생선을 줄여서 반찬을 만들었다.
- ③ 점심 먹고 이따가 만나자.
- ④ 우리는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다.
- ⑤ 동생은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고 있다.

문 2. 다음 글에 나타난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견해는?

아침에는 부석거리며 일어나서 흙삼태기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서 뒷간을 쳐 나르고, 9월이 되어 비·서리가 내리고 10월이 되어 옅은 얼음이 얼면, 뒷간의 남은 찌꺼기와 말뚝·쇠뚝 또는 췌대 밑의 닭·개·거위 따위의 똥이나, 또는 입회령·좌반룡·완월사·백정향 따위를 취하기를 마치 주옥(珠玉)처럼 소중히 여겼으나 이는 그 사람의 청렴한 인격에는 아무런 손상을 가져 오지 않았을 뿐더러, 혼자 그 이익을 차지하였으나 아무런 정의(情誼)에도 해로울 것이 없으며, 아무리 탐하여 많이 얻기 힘들다 하더라도 남들은 그에게 '사양할 줄 모른다'고 책하지 않는다.

- ① 마치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듯, 사회를 구성하는 각 성원들은 각자의 맡은 곳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 사회는 발전한다.
- ② 인간에게는 평등을 지향하는 심성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취동기를 고취함으로써 개인의 도약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 ③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것이며, 고단한 매일의 노동 속에서 느끼는 현세의 고달픔을 극복하고 절제와 청렴을 실천하는 삶이 야말로 내세의 복락을 가능케 할 것이다.
- ④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준거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의 언행과 성품, 태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 ⑤ 사회의 가장 어둡고 비루한 곳에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며, 이들이야말로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문 3. 어문 규정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은?

- ① 오랫동안 만난 반가운 친구의 얼굴이야말로 늙으막의 작은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 ② 넓직한 앞마당에서 벌린 웃어른의 생신 잔치는 흥겨운 분위기를 띠며 한창 무르익어 갔다.
- ③ 그녀는 설레임과 바람이 한 데 어울어진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 ④ 내노라하는 신인 연주자들과 실력을 겨루어 예상 밖의 우승을 차지한 그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 ⑤ 그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알려지자 소문은 금세 퍼져 나갔

문 4. 다음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서술 방식은?

법은 필요악이다. 법은 우리의 자유를 막고 때로는 신체적 구속을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법은 달가운 존재가 아니며 기피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 현실이고 보면 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와 같이 법의 양면성은 울타리와 비교될 수 있다. 울타리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바깥 출입의 자유를 방해하는 점에서 답답한 존재다. 그러나 부질없는 낯선 사람의 눈총을 막아 주고 악의에 찬 침입자를 막아서 가정의 안전하고 포근한 삶을 보장하는 점에서 울타리는 고마운 존재이다. 법은 이런 울타리처럼 달갑지 않은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지닌 것이다.

- ① 비교 ② 예시
③ 구분 ④ 정의
⑤ 비유

문 5. 다음은 사이시옷에 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이다.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예에 잘못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① ㉠ : 덧가지, 바닷가, 낫값, 부싯돌
- ② ㉡ : 땀나물, 잇몸, 냇물, 아랫마을
- ③ ㉢ : 베갯잇, 뒷일, 나뭇잎, 두렛잎
- ④ ㉣ : 아랫방, 못자리, 자릿세, 머릿방
- ⑤ ㉤ : 갯날, 뗏마루, 훗날, 제삿날

문 6. 다음 중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야 할 문장은?

- ① 우리 시가 제5 회 국제 마라톤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②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곤 당신뿐이었지만, 못 본 지 3년이나 된 시점이라 손을 내밀기 어려웠습니다.
- ③ 김 선생님께서 박 군의 딱한 처지를 아시고, 학교에서만이라도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 ④ 그간 안녕들 하셨냐는 인사에 “잘 있었다마다!”를 연발하시는 어르신들께 맨 먼저 우리 가족을 차례차례 소개했다.
- ⑤ 겨울 날씨 치고는 제법 따듯한 편이어서 우리는 모처럼 강변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문 7. 다음 중 주제가 같은 작품들로 묶인 것은?

(가)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古國山川을 써나고자 흥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나) 쓴 누물 데온 물이 고기도곤 마시 이세
초옥 조븐 줄이 기 더욱 내 분이라
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계워 흥노라

(다) 옷 버서 아희 주어 술접의 볼모하고
靑天을 울어려 달드려 물은 말이
어줍어 千古 李白이 날과 엇더하든요

(라) 歲月이 如流하니 白髮이 절로 난다
썩고 썩 썩아 점고져 하는 뜻은
北堂에 親在하시니 그를 두려홈이라

(마) 갓 버서 松枝에 걸고 九節竹杖 巖上에 두고
潁水川邊에 귀 씻고 누어시니
乾坤이 날드려 니르기를 흠기 늣자 흥더라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마) ④ (다), (마)
⑤ (라), (마)

문 8.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 중 같은 상대높임 등급을 가진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남자 : 여기 앉아도 됩니까?
 여자 : 네. 앉아도 돼요. 자리에 여유가 있으니 아이도 앉히시죠?
 남자 : 고맙습니다. 애, 여기 앉아라.
 여자 : 그래, 여기 앉아.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아이 : 감사합니다. (창 밖을 가리키며) 와! 여기서는 식물원 전체
가 다 보이네!
 여자 : 그렇지?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
 아이 : 저는 빨간 장미가 제일 좋아요.

- ① 됩니까 - 앉히시죠 - 고맙습니다
- ② 앉아라 - 생겼구나 - 좋아하니
- ③ 왜요 -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④ 앉아 - 생겼구나 - 그렇지
- ⑤ 보이네 - 그렇지 - 좋아하니

문 9.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그가 잘 다니던 직장을 ㉠별안간 그만두고 ㉡어이없게도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소식은 ㉢삼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 나갔다.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했던 동료 몇몇이 그의 집에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삼가는 빛이 ㉥역력한 가족들의 태도에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관해 무성했던 갖가지 소문들은 ㉧잠잠해졌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갔다. 인사가 늦어져서 업무가 ㉩갑절로 늘었음을 깨닫는 순간을 제외하면, 이제는 동료들 중 누구라도 그의 빈자리를 찾기 ㉪십삼이었다.

- ① ㄱ, ㄷ, ㅅ, ㅈ
② ㄴ, ㄹ, ㅁ, ㅅ
③ ㄷ, ㅁ, ㅅ, ㅈ
④ ㄹ, ㅁ, ㅅ, ㅈ
⑤ ㅁ, ㅅ, ㅈ, ㅊ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11)

(가) 현금 세계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인생을 편케 하는 공업이 많으니 대개 운선과 철도와 전선과 우체와 각색 기계 등물을 만드는 일이라. 만일 이 같은 편리한 것이 없으면 어찌 능히 풍파를 두려워 않고 대양을 평지같이 왕래하며 몇천 리 몇만 리 되는 육지를 멀다 이르지 아니하고 다니며 순식간에 천하 각국과 통신하며 돈과 시간을 허비치 않고 서류를 전하며 인력을 쓰지 않고 무슨 물건이든지 신속히 정밀하게 되리오.

(나) 한국이 더 평등한 경제와 더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기 위해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예술과 학문이고,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궁구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일이다.

(다) 네가 양계(養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農書)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아라. 색 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닭이 앉은 해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 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

(라)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분별력과 감정 이입을 미래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 문학 작품은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아울러 법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적 합리성은 인도주의적이고 다가치화된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 피고들을 ‘얼굴 없는, 미분화된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간 존재로’ 다루도록 법관들을 일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 특히 서사적 문학은 법과 공적 합리성에 기여하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단언한다.

(마) 인문학이 전략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것은 기본적으로 통합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즉 학문 또는 과학의 3분화 현상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인문학이 전략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시점, 예컨대 정조 시대의 다산 정약용, 르네상스 시기의 월터 롤리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철학과 문학, 역사학은 물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까지도 섭렵하여 통합적 학문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다.

문 10. 위 글 중 주장하는 바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문 11.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운선, 철도, 전선, 우체’ 등을 ‘항공, 인터넷, 우주 공학’으로 대체하여도 글의 본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
② (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와 (라)는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
③ (다)에서 말하는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란 각종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평무사한 암행어사, 선인을 모해한 악인을 처단하는 사또가 등장하는 고전소설들은 (라)의 논지의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

- ⑤ (마)에는 통합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실지(失地) 회복에 대한 염원이 함축되어 있다.

문 12.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가)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펼썩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므르래 아니 그늘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 (나) 閔민損손의 다습어미 損손이를 띄여 제 아돌란 소음 두어
주고 閔민損손이란 곱품 두어 주어늘
<삼강행실도>
- (다) 對甞答답호되 兪용ㅣ 罪甞를 어더든 티샤미 상네 알팍더니
이제 어마넛 히미 能능히 알팍게 묻흐실시
<내훈>
- (라) 우리웃 계우먼 큰 罪를 님습고 흐다가 이긔면 거쥏 이룰 더
르쇼셔 흐야늘
<월인석보>
- (마) 계오 열 설 머거셔 쇠 치운 저기며 덩고 비오는 저기도 피스
와 저므도록 셔셔 안즈라 아니흐거시든
<변역소학>

- ① 펼썩 - 움직이므로
② 다습어미 - 의붓어미, 계모
③ 상네 - 항상, 늘
④ 흐다가 - 일하다가
⑤ 쇠 - 몹시, 심히

문 13. 다음 글의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사자성어는?

어느 날 새끼양이 냇가로 물을 먹으러 갔다. 그때 늑대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 늑대는 배가 고프는데다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였다. 별 생각 없이 물을 먹으러 왔던 늑대는 새끼양을 보자 괜히 시비를 걸었다.

“야! 새끼양아. 너 왜 내 물을 더럽히는 거야? 무슨 일이든 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법이야. 아무래도 넌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이리 와 봐!”

새끼양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미안한 얼굴을 하고 늑대 앞으로 갔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러자 늑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내가 먹을 물을 더럽혔잖아!” 하고 화를 냈다.

“하지만 저는 아래쪽에서 물을 마셨는데요.”

새끼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늑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너, 작년 여름에 내 욕을 하고 다녔다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면 네 형이 그랬구나.”

“저에게는 형이 없는데요.”

“듣기 싫어! 하야간에 너희들 중 누군가가 그랬어. 너희들은 전부 나를 바보로 알고 있던 말이야!”

새끼양이 늑대의 등등한 기세에 눌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늑대는 “그것 봐라. 사실이 아니냐? 너희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야. 이 자리에 없는 너희 부모 형제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앞에서 나쁜 짓을 한 너는 용서할 수 없다. 나쁜 짓을 한 놈은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새끼양은 어처구니없게도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 ① 言語道斷 ② 指鹿爲馬
③ 弱肉強食 ④ 牽強附會
⑤ 蚌鷸之爭

문 14. 다음 글의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할 때 적절한 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0년 전이 조금 아까 같을 때가 있다. 나의 시선이 일순간에 수천 수만 광년(光年)밖에 있는 별에 갈 수 없듯이, 기억은 수십 년 전 한 초점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와 그 별 사이에는 희미해지는 공기와 멀고 먼 진공이 있을 뿐이오, 30년 전과 지금 사이에는 변화 곡절이 무상하고 농도 두터운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생활 역사를 한 페이지 읽어 보면 일 년이라는 세월은 긴긴 세월이오, 하룻밤, 아니 오 분에도 별별 사건이 다 생기는 것이다.

- ① ‘광년(光年)밖에’는 ‘광년(光年) 밖에’로 띄어 써야 한다.
② ‘별에 갈 수 없듯이’는 ‘별에 갈 수 있듯이’로 고쳐야 논리적으로 옳다.
③ 접속어 ‘그러나’는 ‘그러므로’로 바꾸어야 전후 간의 문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④ ‘희미해지는’과 ‘농도 두터운’은 각각 ‘희박해지는’과 ‘농도 짙은’으로 고쳐야 그 의미가 정확하다.
⑤ ‘뿐이오’와 ‘세월이오’는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이므로 각각 ‘뿐이요’와 ‘세월이요’로 고쳐 써야 한다.

문 15.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_____ <보 기> _____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가) 모든 사회는 그 시대에 따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여러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도 앞서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나) 역사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도 컸던 것 같다. 사회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과 정치가 현대와 같은 복합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마치 사회는 개인을 위해 있으며, 개인이 사회의 주인들인 것같이 생각되어 왔다.

(라) 영국을 출발점으로 삼는 산업 혁명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사회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마) 19세기 중엽에 탄생된 여러 계통의 사회과학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 중심 체제로 변한 것을 실감케 된다.

(바)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현상같이 느껴졌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든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굳어졌다.

(사)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때의 ‘우리’라 함은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① (가) 앞 ② (라) 앞
③ (마) 앞 ④ (바) 앞

⑤ (사) 앞

문 16. 다음은 국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중 법률 입안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입안 과정

㉡의뢰한 법률안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한 다음 관련된 입법 정책 및 법제기술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면 입법자의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계 및 자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안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 ① ㉠ : 立案 ② ㉡ : 依頼
③ ㉢ : 把握 ④ ㉣ : 初案
⑤ ㉤ : 趣旨

문 17.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바른 것은?

- ① 제자들은 스승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② 우리 대학인들은 우리 사회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③ 아이들은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④ 그녀의 행동은 모두에게 평범하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⑤ 외아들인 그는 부모님들로부터 특별한 관심 속에 자랐다.

문 18. 다음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인 도상성(圖像性)에 관한 설명이다. 밑줄 친 ‘순서적 도상성’에 어긋나는 것은?

양적 도상성은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복수나 복합어는 단수나 단일어보다 각각 복잡한 개념이며, 따라서 복수나 복합어의 형태는 단수나 단일어의 형태보다 길이가 길다.

순서적 도상성은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 언어구조에 반영된 경우이다. 가령 “그는 집으로 들어가고 대문을 열었다.”가 부자연스럽고 “그는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자연스러운 것은 순서적 도상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거리적 도상성은 개념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비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화자와의 개념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것이 호칭어의 형태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어녹다 ② 문답(問答)
③ 건너뛰다 ④ 입퇴원
⑤ 오르내리다

문 19. 다음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반영된 어휘가 아닌 것은?

- ① 따라 ② 바느질
③ 우리러 ④ 비다
⑤ 겨우내

문 20. 밑줄 친 시어와 그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예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
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 ①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그들을 사
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
이 부시다.
② 내 신발은 / 십구 문 반(十九文半). //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 그들 옆에 벗어나면 / 육 문 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 귀염
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③ 매양 추위 속에 /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 새해는 그런대
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 싹이 / 봄날을 꿈꾸듯 // 새해는 참고 /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④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
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 공주(公主)처럼 지쳐
서 돌아온다.

문 2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은?

- ① 배터리(battery), 팜플렛(pamphlet), 뷔페(buffet)
② 내레이션(narration), 난센스(nonsense), 소시지(sausage)
③ 플래카드(placard), 콩트(contte), 콘셉트(concept)
④ 바비큐(barbecue), 초콜릿(chocolate), 판다(panda)
⑤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오셀로(Othello), 아이섀도(eye shadow)

- ①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상생 관계
- ②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 ③ 사회적 기업의 다국적 연대 확산
- ④ 환경 운동의 효과적 방안
- ⑤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